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

2018. 3. 15

- 건의처 : 청와대

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

□ 현황

- 2017년말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서 STX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은 수출의 83.7%, 출하액의 46.3%, 고용의 11.5%를 차지하는 등 진해구 경제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진해구 조선산업 비중(2017년 기준)

근로자수(명)		출하액(백만원)		수출액(천불)	
진해구 전체	21,660	진해구 전체	2,548,228	진해구 전체	1,058,666
선박	2,492	선박	1,181,582	선박	886,619
비중	11.5%	비중	46.3%	비중	83.7%

* 출처 : 통계청

- 지난 2013년 4월 STX조선해양(주)의 자율협약 신청 이후 진해구 조선산업의 업체수와 근로자수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와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진해구 선박 보트 건조업 동향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업체수	265개사	259개사	303개사	273개사	182개사
피보험자수	6,300명	5,559명	5,554명	3,404명	2,492명

* 출처 : 고용정보원

- 특히 STX조선은 자율협약 신청 이후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대규모 인력감축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2013년(3,600여명) 대비 60% 이상 감소한 1,4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STX조선은 인원 감축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수주활동 및 원가절감 등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노사가 협력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 지난 3월 8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오는 4월 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임
- 이에 STX조선이 정부 및 채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또 다시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협력업체의 인원 감축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지원대책이 요구됨

□ 건의

- 지난 3월 6일자로 변경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에 계속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의 조속한 지역경제 회생과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를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